

## 거룩한 관계를 위한 기초(1)

본문 : 출애굽기 24장 4~11절

- (출 24:4)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 ■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 사실은 성막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되면서 조금 걱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막 제도가 출애굽 신앙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총아를 흠뻑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올 것인지는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와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수 있게 되길 기도하게 됩니다.
2.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막은 바로 그 관계의 언약위에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발견하게 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시내산 언약 사건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3.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면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의 장로들 중 70명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증인으로 직접 그 언약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식에서 중요한 절차가 두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대표되는 제사와 그 제사 제물의 피의 처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영적 진리였습니다. 이때 제사는 누가 중심이 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 시내산 언약식 이후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언약식은 다시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본격적인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막 자체나 각종 기구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 ■ 함께 하는 기도제목

1.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에 힘쓰는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뉘어 드리는 예배 중에도 살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소서. 청년부 수련회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만나주소서.
2. 성막을 비롯한 각종 기구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배울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이시대 필요한 거룩함과 정결의 의미를 올바르게 배우게 하소서.

## 거룩한 관계를 위한 기초(2)

본문 : 예레미야 7장 1~7절

- (렘 7: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 (렘 7:2)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 (렘 7: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 (렘 7: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 (렘 7: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 (렘 7: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 (렘 7: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 (렘 7: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 (렘 7: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 (렘 7: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 (렘 7: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 (렘 7: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 (렘 7:13)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렘 7: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 (렘 7: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 (렘 7:16)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 (렘 7: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 (렘 7:18)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 (렘 7:19)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 (렘 7:20)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 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